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24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24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납세자를 최고 고객으로 모시는 자세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하게 완주

■ 광주지방국세청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때 영세 납세자와 성실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에 신경쓰지 않고 생업에 전념토록 ‘납세자 중심’의 세정지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서극한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출사표다. 최근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남유럽으로부터 촉발된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경제여건도 어려워진 가운데 희망과 위기극복의 생생한 에너지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서 청장은 지역민들과 함께 달리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 청장은 지역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고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경영에로 기업·생산적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과 소규모 사업자 위주의 현장중심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납세자를 최상의 고객으로 모시는 최고의 서비스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서 청장은 이번 대회를 직원들과 소통과 만남의 장으로 만들 생각이다.

서 청장은 “광주지방 국세청이 최고의 서비스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심신을 가져야 하는데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건강도 챙기고 소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번 대회에 처음으로 경기장 일대에 홍보부스를 별도로 마련해 납세자를 위한 행정노력을 시·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알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든든한 학자금(ICL)제도, 현금 영수증 제도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세정홍보의 장으로 삼기 위해 3·1절 마라톤대회를 기다리고 있다.

서 청장은 직원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 산책로를 뛰며 컨디션 조절에 나섰다. 서 청장은 “임직원 모두가 납세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는 자세로 지역민들과



지난해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에 출전했던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출전에 앞서 시·도민에게 세정을 홍보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함께 호흡하며 건강하게 완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던 이광영(54)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대회 5km에 출전해 그동안 치료결과를 체크하고, 광주지방국세청 ‘만능 운동맨’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화 끈을 조여맸다.

두번째 대회 출전인 이현민(여·54)징세과장은 광주일보 마라톤대회 출전이 “건강과 가족간의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이번에도 가족과 함께 달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달리는 것 자체가

와 건강을 다지기에 최고의 운동이라고 살짝 귀띔한다.

문동호(42)조사관은 평소 운동을 멀리했으나 지난해 광주일보 마라톤대회 출전을 계기로 달리기 시작해 초등학생 아이들과 함께 달리는 것이 취미가 됐다. 이날도 아이들과 함께 5km에 출전해 즐거움과 추억을 만들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유소연 아쉬운 18홀

호주여자마스터스 역전패 ... 김하늘과 공동 2위

지난해 US여자오픈 챔피언 유소연(22·한화)이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2012 개막전에서 우승컵을 눈앞에서 놓쳤다.

유소연은 5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로열 파인스 리조트(파72·5954야드)에서 열린 LET RACV 호주여자마스터스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타수를 줄이지 못해 크리스텔 부엘리옹(네덜란드)에게 역전패를 당했다.

부엘리옹은 합계 21언더파 267타로 우승했고, 유소연은 20언더파 268타를 쳐 김하늘(24·비싸카드) 등과 함께 공동 2위에 머물렀다. 3타차 단독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유소연은 12번홀까지 보기 1개와 버디 1개를 맞바꿔 타수를 줄이지 못해 동반플레이어 부엘리옹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2타를 줄여 1타 뒤진 2위로 추격하던 부엘리옹은 13번홀(파4)에서 3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유소연과 동타를 이뤘다. 두 선수의 광활한 접전은 17번홀까지 이어졌지만 18번홀(파5)에서 유소연의 두번째 샷이 그린 위에 올라가지 못해 승부가 갈렸다.

유소연이 그린을 노리고 친 두 번째 샷은 그린 옆 벙커에 떨어졌고 세 번째 샷마저 홀에서 6m를 지나쳐 굴러갔다.

유소연의 버디 퍼트가 홀을 빗나간 뒤 2연에 성공한 부엘리옹이 시도한 이글퍼트는 홀 1.2m에 멈춰섰다.

유소연과 먼저 경기를 끝낸 김하늘은 내심 연장전을 기대했지만 부엘리옹은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고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연합뉴스



유소연이 5일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린 호주여자 마스터스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에서 7번홀 퍼트를 놓친 뒤 아쉬워하고 있다.

SUN “알렉스, 집으로 가”

용병 20일만에 퇴출

KIA 왼쪽 투수 고민

KIA가 ‘왼쪽’ 고민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가 5일 좌완 알렉스 그라만(35)과 계약을 하지 않기로 최종결정했다. 좌완 에이스 양현종의 어깨 통증까지 겹치면서 선동열 감독의 좌완 마운드 구상에 비상이 걸렸다.

선 감독은 올 시즌 두 좌완으로 외국인 투수를 구성한다는 방침이었다. 좌완 외국인 콤비를 각각 선발과 중간계투진으로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마땅한 자원을 찾지 못하면서 우완 앤서니와 좌완 알렉스로 스프링캠프를 시작했다.

하지만 좌완 알렉스는 지난 1월 준승 진행던 메디컬 테스트에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왼쪽 팔꿈치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불안한 출발을 한 알렉스는 캠프에서도 매력적인 공을 뿌리지 못했다.

일본 세이부에서 특급 마무리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2009년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하향세를 타던 알렉스는 결국 20일 만에 KIA 캠프에서 철수하게 됐다.

KIA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 물색 작업에 나섰다. 왼손 투수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우완·좌완 구색 맞추기도 만만치 않다.

좌완기름속에 설상가상 양현종도 어깨 통증으로 정상적인 피칭 훈련을 소화하지 못



퇴출된 좌완 용병 알렉스 그라만

하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시즌 3년 연속 세 자릿수 승수에 도전했지만 밸런스 난조 속에 6.18의 방어율로 7승9패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욕심에 차지 않은 성적이 나오면서 후반기 컨디션이 완벽치 않은 상황에서도 공을 던지면서 탈이 났다.

‘윤석민만 선발 확정’이라고 밝혔던 선 감독은 캠프에서 마운드 틀을 잡겠다는 생각이었지만 두 좌완을 놓고 수가 틀어지면 머리가 복잡해지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28위 김원진 파리 유도 ‘銀’

한국 남자 유도 경량급의 ‘기대주’ 김원진(용인대)이 2012 국제유도연맹(IJF) 파리 그랜드슬램 남자 60kg급에서 강호들을 물리치고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원진은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남자 60kg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리소드 소보리프(우즈베키스탄)에 발뒤축 걸기되처기 환관패를 당해 준우승했다. 세계랭킹 28위인 김원진은 16강에서 세계

랭킹 4위인 게오르기 잔타리아(우크라이나)를 허리채기되처기 유효로 따돌리는 이변을 연출했다. 준결승에서도 ‘난적’ 아미린 파피나쉬빌리(조지아·세계랭킹 6위)를 무릎대 돌리기 환관승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또 남자 66kg급 결승에 진출한 조준호(한국마사지·세계랭킹 9위)는 세계랭킹 13위인 다비르 라로세에게 관정패를 당해 아쉽게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운드, 인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자동차경비일체, 빗대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비뒀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이차기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전국최저가 판매, 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임동 자동차처리 중간사거리(20분점)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루마스타급 50% 특별할인 행사

▶전면 179,000원 ⇒ 85,000원
 ▶후측면 239,000원 ⇒ 145,000원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RV 5인기준 4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펄크 무상점검
- 타이어알,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소형 25만원 ⇒ 13만원 ▶RV 35만원 ⇒ 23만원
 ▶중형 30만원 ⇒ 18만원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대형 35만원 ⇒ 23만원